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38. 시편 92편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와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풀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와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421장

대표기도 / (1부) 이기숙 집사 (2부) 윤성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누가복음 5:33~39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말 씀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 전종남 목사
(New Wine into New Wineskins)

찬 송 / 436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마음 오후예배〉 ■ 오후 2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심상현 목사

찬 송 / 한마음으로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기도 / 김민서 청년
성경봉독 / 사무엘하 5:1~10 찬 양 / 3·4여 전도회외 1팀
말 씀 / “개천에서 용 나고, 광야에서 왕 난다.” / 심상현 목사
(Dragons Rise from Humble Beginnings, and Kings Emerge from the Wilderness.)

〈가정예배〉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가족중 인도자

찬 송 / 366장, 521장
성경봉독 / 신명기 16:13~15
말 씀 /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의 가정.” / 가족중 인도자
(추석 연휴로 인해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에스겔 강해 / 전종남 목사 각자 집에서 기도.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9월	1부	2부
강현주 권사	윤결태 장로	송미숙 권사	안내 헌금	김신영 박영미	최영종 이영희 유경순 이대기 박선진 우말순 김정순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전종남(최경애) 정규식(이석란) 최승태(김상금) 최인숙 최차순 황하연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순천(연윤희) 문상필 김영옥(제유란선) 심상현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이상혁(송미숙) 이혜숙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승태(김상금) 최인숙 최차순 한희숙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홍우표(윤명란)				
선교헌금	전종남(최경애) 김경희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유병용(황하연) 최승태(김상금) *부서헌금: 유초-중고				
구제헌금	전종남(최경애) *구역헌금: 1, 4, 5 구역				
교육헌금	전종남(최경애) 정규식(이석란) 최인숙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9.13.)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눅5:27~32)

전 종 남 목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를 찾아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레위의 죄인 됄을 보면서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은혜 안에서 변화될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27절).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레위에게 먼저 삶을 깨끗이 정리한 뒤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바로 그때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2.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28-29절).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어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여,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3.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30~3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다.”고 하시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용서받고 상한 마음과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